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읽기 시즌1 - 6강 강의록 칸트 미학에서의 발생의 이념

다. 『판단력비판』의 통찰력

4. 칸트적 혁명의 네 번째 측면 :

“모든 감각의 착란”(렙보)/“모든 능력의 착란적 실행”(칸트)

사실 그 이전의 다른 두 비판(『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속에서는 다양한 주관적 능력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되, 이때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지배하거나 규정하는 하나의 능력, 즉 자기의 규칙을 다른 능력들에게 강요하는 하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거기에는 외적 감각, 내적 감각, 상상력, 오성, 이성 등 하나하나가 잘 정의된 다수의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순수이성비판』 속에서는 오성이 상상력이 행하는 종합을 매개 삼아서 내적 감각을 규정하였으며 심지어는 이성마저도 오성이 그에게 할당하는 역할에 복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능력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실천이성비판』 속에서는 이성이 법칙이라는 보편성의 순수 형식을 구성하였으며 이때 다른 능력들을 지배하고 있었다(즉 오성은 법칙을 적용해야 했고, 상상력은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내적 감각은 결과 내지 처벌을 체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위대한 저술가들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기에는 거의 힘든 나이에 이르러, 칸트는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기막힌 시도 속으로 끌고 들어갈 어떤 한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된다. 그가 부딪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능력들이 이처럼 자신들 중의 한 능력에 의해서 규제된 다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능력들 모두는 그 이전에 이미 자유로우며 **규칙이 배제된** 관계들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능력들 각자가 자기 한계에까지 나아가되 동시에 다른 능력들과 더불어 그 어떤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들을 미리 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중략]

『판단력비판』은 감성적인 것이 감성적인 것 자신을 위해 가치를 지니는 미학, 감성적인 것이 모든 논리를 넘어 **파토스**pathos 속으로 감성적인 것 자신을 전개시켜 가는 미학, 시간을 시간 자신의 분출 속에서 취하는 미학, 시간의 실과 시간의 현기증이라는 근원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꿰뚫어 볼 미학으로서 곧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미학**인 것이다. 또 더 이상 『판단력비판』으니 시간의 질서를 규제된 관계 속에서 자아를 나에 관련시켰던 『순수이성비판』의 촉발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시간의 원천을 이루는 기묘한 결합들을 형성하기 위해, 즉 “가능한 직관들의 임의적인 형식들”을 형성하기 위해 나와 자아로 하여금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놔두는 파토스이다.

실제로 『판단력비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을 정의해줄 이런저런 현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간의 내적 감각에게 자율적이고 보조적인 차원을 부여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상상력에게 자유로운 반성의 능력을 부여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오성에게 무한한 개념적인 힘을 부여하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에 따르면 다양한 능력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능

력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은 일치 속으로 들어간다. 즉 그것이 더 이상 규칙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은 일치,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의 조건 아래에서 자아와 나 사이의 자발적인 일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은 일치 속으로 다양한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숭고함은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간다. 왜냐하면 숭고함은 다양한 능력으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싸움을 하듯 서로 맞서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 능력이 다른 한 능력을 그의 최대치 또는 그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밀어붙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렇게 밀어붙여진 능력은 자기를 밀어붙였던 능력을 자기 혼자서는 결코 획득하지 못했을 영감을 향해 다시 밀어붙이면서 반응을 한다. 한 능력이 다른 한 능력을 한계에 이르도록 밀어붙이지만, 결과적으로 각각의 능력은 한 능력으로 하여금 다른 한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과 이성 사이에, 오성과 내적 감각 사이에 행해지는 가공스러운 싸움이다. 이 싸움은 숭고함의 두 형식[수학적인 숭고함과 역학적인 숭고함]과 천재[천재론]을 자기의 에피소드로 갖는다.

이처럼 주체 속에 열려 있는 깊은 구멍 내부에 격랑이 일며, 능력들은 그곳에서 각자 고유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맞서다가 결국 근본적인 불일치 속에서 그들의 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일치하지 않은 일치, 바로 이것이 『판단력비판』의 위대한 발견이자, 칸트가 행한 마지막 뒤집음인 것이다. 재결합을 하는 분리가 『순수이성비판』에 나타난 칸트의 첫 번째 테마였다면, 중국에 이른 칸트는 이와 같이 일치를 하는 불일치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랭보에게 있어서 모든 감각의 착락이 미래의 시를 정의해야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칸트가 발견한] 이 같은 모든 능력의 착란적 실행은 이제 미래의 철학을 정의하게 된다. 즉 불일치로서의, 일치하지 않은 일치로서의 새로운 음악과 시간의 원천이 있게 되는 것이다. (171~175쪽)

☞ 미래의 철학을 보여준 새로운 사유 방식 : 미리 규정되지 않은 사유

규제 : 이론이성 : 지성 중심- 개념적 인식 ; 감성의 재료를 개념으로 재현 = 규정적 판단
이성 : 개념을 경험 너머까지 확대하여 다룸. 자아(실체성), 세계(인과확대), 신(동시성)

실천이성 : 이성 중심 - 법칙 설정 능력

주도권 행사 : 능력들 간의 일치 가능케

→ 모든 능력들이 저마다 제 활동시 :

능력들의 자발성-판단력 : 목적없는 합목적성

판단력 비판/미학적 판단 : 주도하는 능력이 없이 능력들의 일치가 가능

목적도 개념도 없이

미 : 목적 없는 합목적성으로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조화와 일치

숭고 : 상상력과 이성(이념)에 일어나는 불일치의 일치

- 상상력의 착란과 파산이 이념을 현시함

= 불일치에 의한 일치 : 대상의 발생

0. 칸트의 삼대 비판서 개괄

상위 영혼 능력들의 표

마음의 전체 능력	인식능력	선험적 원리	적용대상
인식 능력	지성	합법칙성	자연
쾌·불쾌의 감정	판단력	합목적성	기예
욕구능력	이성	궁극목적	자유

※ 사람들은 순수철학에서 나의 구분들이 거의 언제나 3분법적이 되는 것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구분이 선험적으로 지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일 것이다. 분석적일 경우는 모순율에 따른 것으로, 그 경우에 구분은 항상 2분법적이다. (어떠한 것이든 A이거나 非A이다.) 종합적인 경우에는 구분이 (수학에서처럼, 선험적으로 개념에 대응하는 직관으로부터가 아니라) 선험적 개념들로부터 이끌어내져야 한다면, 종합적 통일 일반에 필요한 것, 곧 1) 조건, 2) 조건지어진 것, 3) 조건지어진 것과 그것의 조건과의 통합에서 생기는 개념, 이것들에 따라서 구분은 필연적으로 3분법일 수밖에 없다.

- 『판단력비판』(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0년, 187쪽)에서

그러므로 자연은 그 합법칙성의 근거를 인식능력인 지성의 선험적 원리들에 두고, 기예는 그 선험적 합목적성에서 쾌·불쾌의 감정과 관련해서 판단력에 따르며, 끝으로 (자유의 산물인) 윤리는 욕구능력에 관한 이성의 규정근거로서의 보편적 법칙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합목적성이라는 형식의 이념 아래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선험적 원리들로부터 생겨나는 판단들이 이론적, 미감적, 실천적 판단들이다.

이리하여 그것의 자연과 자유와의 관계에서 각기 특유한 규정적인 선험적 원리들을 가지면서, 그로 말미암아 교설적 체계로서의 철학의 두 부문(즉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을 이루고 있는 마음의 능력들의 한 체계가 발견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의 특유한 원리에 의해 양 부문을 연결하는 판단력을 매개로 한 이행, 곧 전자의 철학의 감성적 기체로부터 후자의 철학의 예지적 기체로의 이행이 또 하나의 능력(즉 판단력)의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이 또 하나의 능력은 [양 부문을] 연결하는 데 쓰일 뿐이고, 그래서 물론 독자적으로는 어떤 인식을 마련한다거나 교설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판단력비판』(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0년, 640~641쪽)에서

<칸트의 비판철학의 체계>

칸트의 비판철학 : '인간이란 무엇인가'		
『순수이성비판』 - 제1비판서	『실천이성비판』 - 제2비판서	『판단력비판』 - 제3비판서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순수이성의 근거와 한계	인간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 실천이성의 근거와 한계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 판단력의 근거와 한계
인식/앎의 원리 : 지성/오성이 감성계에 속한 자연의 영역에	행위/실천의 원리 : 실천이성은 초감성적인 자유의 영역에	미감의 원리 : 미적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함으로써 미나
선험적인 법칙을 부여함으로써	도덕법칙을 부여함으로써	인

써 자연의 영역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얹이 가능해진다. 인식의 한계 : 감성계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자연의 초감성적 영역인 물 자체, 즉 예지계의 세계에 대한 앎은 불가능하다. 물 자체는 인식될 수 없고 사유될 수 있을 뿐이다.	간행위의 도덕적 판단의 원리를 제공한다. 의지를 규정하는 선천적 원리는 실천이성에 의해 가능하다. 의지의 자기입법성.	승고를 느끼게 한다. 주관적 합목적성의 원리에 의해 미적 대상과 주관적 상태의 관계의 원리가 제공된다. 반성적 판단력은 자연과 자유, 인식과 행위, 감성과 자발성, 현상적 세계와 예지적 세계 사이의 균열을 매개한다.
마음의 능력 : 인식능력(감성적 자연의 영역)	마음의 능력 : 욕구능력(자유 의 영역)	마음의 능력 : 쾌나 불쾌의 감정능력(감정의 영역)
감성·상상력 < 오성	감각적 욕구 < 실천이성	감각적 감정 < 쾌·불쾌
진(眞)	선(善)	미(美)

*판단력 : “특수자를 보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은 감관에 나타난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는 능력이다. 인식에서 감관을 넘어서는 것이 이성의 이론적 사용이고, 행위에서 이성이 감관을 넘어서는 것이 이성의 실천적 사용이다.

세 개의 비판은 진정한 전환의 체계를 보여준다. 첫째, 능력들은 표상 일반(인식함, 요구함, 느낌)의 관계에 따라 정의된다. 둘째, 능력들은 표상의 원천(상상력, 지성, 이성)으로서 정의된다. 첫 번째 의미의 능력들 각각마다 반드시 두 번째 의미의 능력이 대상에 대해 입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입법하는 능력은 반드시 그 외의 다른 능력들에게 그 능력들만의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성은 인식 능력에서, 이성은 욕구 능력에서 입법한다. 판단력 비판에서는 상상력이 자기 임무로서 입법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력은 자유로워진다. 그 결과 모든 능력은 함께 자유로운 일치를 이룬다. 이처럼 처음 두 비판은 능력들 중 하나를 통해 규정되는 능력들의 관계를 밝혀내며, 마지막 비판은 모든 규정된 관계의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능력들의 보다 깊은, 자유로우며 규정되지 않은 일치를 밝혀낸다.

(『칸트의 비판철학 : 이성 능력들에 관한 이론』, 질 들뢰즈 지음, 서동욱 옮김, 민음사, 119~120쪽)

<세 능력들의 일치>

이처럼 세 활동 능력(상상력, 지성, 이성)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맺기는 사변적 관심에 따라 결정된다. 입법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이다. 그러나 지성 아래서 상상하고 종합하고 도식을 산출한다. 이성은 추리하고 상징화하며 그 결과 인식은 체계적 통일의 최대를 얻는다. 그런데 이들 능력 간의 모든 일치는 <공통 감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정의한다.

[중략] 경험론의 쓰임과는 반대로 공통 감각은 능력들의 선험적 일치, 혹은 더 분명하게는 그런 일치의 <결과>를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통 감각은 타고난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소통 가능성>의 주관적 조건이다. 인식은 공통 감각을 함축한다. 공통 감각 없이는 인식은 전달될 수 없고 보편성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결코 공통 감각이라는 주관적 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능력들이 선험 본성을 가지 있다는 이념, 능력들이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화로운 균형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건전하고 올바른 본성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칸트의 비판철학 : 이성 능력들에 관한 이론』, 질 들뢰즈 지음, 서동욱 옮김, 민음사, 44~45쪽)

1. 『판단력비판』의 위상 : 자유로운 능력들의 일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글에 대한 들뢰즈의 취지와 결론 :

사실 그의 미학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볼 때, 『판단력비판』은 앞선 두 비판을 단순하게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그것은 앞선 두 비판의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판단력비판』은 다른 두 비판에 의해 가정되고 있는 근거인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된 모든 일치는 일반의 차원에서 자신을 가능케 하는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를 가리킨다. 하지만 왜 꼭 다른 무엇이 아닌 미적 판단이 앞선 두 비판 속에 감추어진 이 근거를 드러내는 것일까? 미적 판단 속에서 상상력은 이성의 지배는 물론이고 오성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실제로 미적 쾌감은 그 자체가 무관심한 쾌감이다. 즉 미적 쾌감은 경험적인 관심으로부터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변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관심으로부터도 독립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적 판단은 입법을 하지 않으며, 또 대상들에 대해 입법을 하는 그 어떤 능력도 함축하지 않는다. 사변적인 관심 속에서의 오성의 입법 활동을 가리키는 현상들, 그리고 실천적인 관심 속에서의 이성의 입법 활동을 가리키는 물자체들, 사실 이 두 종류의 대상을 빼고 나면 다른 종류의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진대,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미적 판단에서의 입법 대상 없음, 입법 활동 없음, 입법 능력 없음 말고] 다른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칸트는 이제 정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판단력비판』은 앞선 두 비판과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고유한 “영역”을 지니지 않으며, 또 [미적] 판단은 입법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입법적일 뿐이다 (즉 미적 판단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입법을 할 뿐이다). 앞선 두 비판은 한 유형의 대상들이 어떤 한 지배 능력 또는 한 규정 능력에 필연적으로 종속한다는 이념을 논제로서 전개했다.

그러나 [『판단력비판』에서] 미적 판단 또는 미적 판단 속의 어떤 한 능력에 필연적으로 종속하는 대상들이란 없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은 단지 [미적] 판단과의 우연한 일치 속에 놓여 있을 뿐이다. 즉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은 본래 그대로의 미적 판단 속에서 집단적으로 실행되는 능력들과의 우연한 일치 속에 놓여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판단력비판』을 앞선 두 비판을 보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어떤 점에서 옳지 않은지를 본다. 왜냐하면 미적 판단 속의 상상력은 오성이 사변적인 관심 속에서 가졌던 역할과 이성이 실

천적인 관심 속에서 가졌던 역할에 비교될 만한 그 어떤 [지배적]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여기에서 오성의 감독과 이성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상상력은 입법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보다 깊이 있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상상력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능력이 각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줌에 틀림없는, 능력들의 실행을 위한 신호를 제공한다. 결국 앞선 두 비판에 대해서 『판단력비판』은 그들의 근거가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 속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 새로운 요소란 다음과 같다. 그것은 곧 어떤 한 능력에 [대상들이] 필연적으로 종속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대상들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연히 일치함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 어떤 한 능력의 주관 아래 규정된 조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들이 그들 간에 이루는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조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187~189쪽)

☞ **들뢰즈의 결론** : 『판단력비판』은

- ① 두 『~비판』의 근거를 제공
- ② 양 일치 발생의 기원을 다 보여주므로

-인식(이론), 도덕(실천)의 전제 조건 : 상상력, 지성, 이성의 능력들 간의 일치

*상상력 : 우리 의식 속에 이미지 만드는 능력, 이미지 가지고 상상하는 능력-경험과 관련된 것 : 재생적 상상력, 생산적 상상력

→ 상상력 = 순수 사고인 직관(시간과 공간)에 개념을 그려내는 능력(=도식)

감각의 상이 개념과 일치할 때 인식이 발생한다.

보편법칙(정언명령 = 보편성의 순수형식을 명령)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실천이성 : 지성과 상상력은 이성의 지도를 받아 활동함.

☞

이론이성에서는 지성의 주도하에 (포착+ 기억(재생)+ 종합) 능력들 간의 일치가 일어난다.

실천이성에서는 이성의 지도하에 능력들 간의 일치가 일어난다.

⇒ 능력들의 일치 발생 이전에 능력들의 자유로운 수행과 활동이 있어야 일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판단력비판』의 문제의식이다.

; 주도하는 능력이 없고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우연적인 일치가 일어나는 『판단력비판』의 재해석 기준 = 상상력과의 일치 + 지도하는 능력이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허용

미의 분석론 : 상상력과 오성/지성의 일치

숭고의 분석론 : 상상력과 이성의 일치

2. 아름다움의 분석론 :

(1) 미의 분석론 :

① “이것은 아름답다.” 대상의 보편적 형식(상상력이 반영하는 활동으로 미적 쾌감의 보편성과 필연성, 즉 미적 공통 감각을 정의함) → 미의 쾌감, 느낌(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일치 체험)

⇒ ②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일치가 존재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 왜 그러한 일치가 발생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것은 유쾌하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에서 우리는 어떤 객관성, 필연성, 보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대상의 순수 표상은 개별적이다. 그러므로 미감적 판단의 객관성은 개념이 없거나, 혹은 (결국 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판단의 필연성과 보편성은 주관적인 것이다. [중략]

상상력은 형식의 관점에서 특정한 대상을 반영한다. 이때 상상력은 지성의 규정된 개념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상력은 개념의 능력 일반으로서의 지성 자체와는 관계한다. 즉 상상력은 지성의 <관계되지 않은> 개념과 관계한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자유로운 상상력은 특정화되지 않은 합법칙성을 지닌 지성과 조화한다. 굳이 말하자면 여기 상상력은 <개념 없이 도식을 산출한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사실 상상력은 도식을 산출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한다. 즉 상상력은 대상의 형식을 반영함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자유를 보여준다. <상상력은 말하자면 형태를 관조하는 가운데 활동한다>. 상상력은 <가능한 직관의 임의의 형식의 원천>으로서 자발적이며 생산적인 상상력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유로서의 상상력과 규정되지 않은 지성의 일치이 있다. 이것은 능력들 사이의 <그 자체 [각각] 자유로우며 규정되지 않은 일치>이다. 이 일치가 바로 미감적 공통 감각(취미(趣味))을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실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가정하는 즐거움은 이 일치의 결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중략]

그러나 상상력은 지성이나 이성처럼 할 수는 없다. 느낌의 능력은 대상에 입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력이란 말의 두 번째 의미에서) 그 자체 입법적인 능력은 없다. 미감적 공통 감각은 능력들의 객관적 일치(즉 지배적인 능력이 대상과 관련하여 다른 능력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 대상은 그 지배적인 능력에 종속되는 것)을 표상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미감적 공통 감각은 상상력과 지성이 각각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순수 주관적인 조화를 표상한다. 따라서 미감적 공통 감각은 다른 두 공통 감각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두 가지를 근거 지우거나 혹은 가능하게 한다>. 만일 모든 능력들이 함께 이 자유로운 주관적 조화를 먼저 이룰 수 없다면, 그 가운데 어떤 한 능력이 입법적이며 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칸트의 비판철학 : 이성 능력들에 관한 이론』, 질 들뢰즈 지음, 서동욱 옮김, 민음사, 89~91쪽)

-취미판단 :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일치.

“이것이 아름답다.”는 미의 특징 :

① 미감적이다. 미적 쾌감은 바로 자유로운 것으로서의 상상력이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오성과 일치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다.

-취미 : 미적인 쾌(감). 외적 목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 없는, 즉 아무런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쾌. 관심과 유용성과 상관 없는 쾌. 그 자체로 즐거운 미. 예) 이것이 아름답다 : 경험을 초월한 뭔가가 있는 것이다.

-쾌락/쾌적함 : 대상의 현존에 대한 관심, 직접적인 욕구에 따른 직접적인 쾌락, 외적인 목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된 쾌. 예) 이것이 짜릿하다 :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

→ 미적 쾌감은 관심과 무관하다. 일단 미적 쾌감이 생겨나면 사후적으로 미적 쾌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경험적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이성적 관심과는 다르다. 미에 대한 감정의 성질은 '무관심적 만족감'이다.

② 개별적인 것에 대한 감정 : 단칭 판단 - 부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 개념이 없다. 개념을 매개로 접근할 수 없는 경험이다. 예) '여자는 아름답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답다.' ('모든 꽃은 아름답다, 그래서 이 장미꽃은 아름답다.')는 추론은 불가능하다. 보편성과 필연성 : "이 그림은 아름다워!"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봐야 해'를 전제 한 말이다. 의무를 요청한다.

☞ 지성의 측면 : ① + ②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 = 개별적인 것 안에서 보편성(보편적 형식)을 느끼는 것이다. 이래서 보편적 형식의 발견과 일치하는 쾌감의 근거이다. 이때 '아, 아름답구나' 하는 쾌감이 발생한다. 이는 어떤 대상 속에서 보편 형식을 발견하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미적 감정의 보편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놀이/유희 속의 조화'이다.

③ '목적 없는 합목적성', 주관적 합목적성.

④ 취미판단의 보편적 필연성의 근거로서 공통감.

<상상력의 기능 차이>

- 『순수이성비판』의 상상력의 기능 : 개념을 가지고 지성의 지도 아래 도식(상상력)을 그려내는 것이다.

- 『판단력비판』의 상상력의 기능 ; 실천이성의 명령을 따라 도덕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적 판단에서 상상력의 기능 :

상상력의 자유 + 규정되지 않은 지성 = 취미(미)의 발생

느끼는 마음대로 표현하는 가운데 보편적 형식과 우연히 딱 맞아떨어짐/일치됨.

비고) 황금률은 모범 사례 : 규칙이 아닌 미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지성의 범주는 선험적 규칙이다.

고정된 일치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모든 능력 간의 자유로운 일치가 있어야 한다.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가 있는 다음에야 입법적 일치가 가능하다.

*마음의 능력들의 기능 :

-감성 : 대상의 수용능력(수용성). 흠의 직접 지각.

-상상력 : 경험 내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능력, 도식능력.

-지성/오성 : 개념능력. 개념에 의한 종합 통일능력. 감각의 다양, 잡다를 하나의 대상 개념으로 묶어내는 것. 초월적 선험적 종합(하나의 인식대상으로 성립시키는 종합, 인식을 성립시키는 인식의 가능근거).

-이성 : 추론능력 제1전제를 끝까지 찾아가는데 그 끝에서 도달한 개념이 경험을 넘어선 이념이다. 이념은 세계의 모든 것을 아울러 통일시키는 존재자이다. 통일이념, 최고의 개념 탐구가 형이상학이다. → 경험 너머에까지 밀어붙여 착란을 구성한다. 착란을 끝까지 추구 하면 남는 것은 결국 착란에 몸을 던지는 인간의 본성만 남게 된다. 주관-영혼, 객관-세계, 주객관-신. → 자유 이념의 영역 속에 실천이 일어난다. 실천은 정언명령(법칙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칙은 이성의 능력이 주도한다.
; 칸트의 반플라톤주의적 측면 - 미적 상상력에 의해 이념 통해/ 숭고 통해 플라톤의 이데아가 현시될 수 있다는 점.

<대상과 관심>

현상 : 사변적 관심, 지성의 입법 활동 - 이론이성

물 자체 : 실천적 관심, 이성의 입법 활동 - 실천이성

☞ 미적 판단 :

① 고유 영역이 없다.

입법 불가능 : 지성 → 규칙(개념) 제시 : 현상

자율 불가능 : 이성 → 실천 규범 제시 : 물 자체

② 자기 입법적이다. 일치 속에서 형식이 탄생한다.

③ 우연한 일치가 이루어진다.

④ 미감 판단의 대상 : 지성이 없으면 미적 판단이 하는 일이 반성 활동, 대상의 형식(대조 등)을 반영함. → 실존이 제외됨 : 실존과 질료(색, 소리)에 무관심. 미적 대상이 아닌 미적 형식이 미감의 주된 관심이다. 대상의 형식만이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예) 그림의 원본과 이발소 그림의 동일한 미감

* 『순수이성비판』의 형식 : 직관의 형식 = 시간과 공간의 형식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의 성격>

① 자기 입법적이다.

② 우연적이다.

☞ 일치 : 상상력 = 입법 불가능 + 자유 가능
+ 지성 = 규정 불가능

③ 일치의 한계 : 공통감(각) → 일치를 뜻함.

㉠ 논리적인 공통감 : 논리적 규칙 - 규정된 공통감

㉡ 도덕적인 공통감 : 도덕적 규칙 - 규정된 공통감

㉢ 미적 공통감 : 주관적 미감 → 보편적 필연성 - 일치의 느낌.

자유로움 + 소통 : 규정되지 않은 공통감

☞ 취미판단은 미적 공통감을 전제·가정함 : 발생이 없는 것이 일치의 한계.

분석 방법 : 결과에서 → 원인 찾기 : 예) 칸트의 미적 현상(사실) : 그 밑에 미적 근거(기초)가 있다는 것.

종합 방법 : 원인에서 → 결과 도출 : 발생 과정.

☞ 미적 판단에서는 능력들의 일치를 느끼지만 그 발생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미 : 대상의 형식을 반성, 반영하는 것.

(2) 숭고의 분석론 :

“이것은 숭고하다.” 보편적 형식의 파괴(무형이나 기형의 대상) 속에서 느끼는 숭고한 느낌

⇒ 상상력과 이성 간의 자유로운 일치의 발생을 보여준다 + 발생의 근거/기원 제시 →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의 발생에 대한 모델·원리 제시·도출

우리는 다른 전형인 <이것은 숭고하다>를 살펴보아야 한다. 숭고의 경우 상상력은 형식적 반성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한다. 숭고의 느낌은 무형 혹은 기형(광대함 혹은 강력함)에 직면할 때 체험된다. 이때 모든 과정은 마치 상상력이 자기의 고유한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처럼, 자기의 최대에 도달하도록 강요된 것처럼 진행된다. 그리고 상상력은 자기 능력을 극단까지 몰고가는 맹렬함을 체험한다. 확실히 상상력은 <포착>(부분들의 연속적 포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후속 부분에 도달함에 따라 선행하는 부분들을 재생해야 할 경우 상상력은 동시적 <총괄>의 최대를 가진다. 광대함에 직면할 경우 상상력은 이 최대의 불충분함을 체험하고는 <이 한계를 확장하려 하나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위축된다>. 언뜻 보아 우리의 상상력을 무력하게 하는 이 광대함은 자연적 대상, 즉 감성적 자연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로 하여금 감성적 자연의 광대함을 하나의 전체로 통일시키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이성>이다. 감성적인 것이 지성적이거나 초감성적인 어떤 것을 기체(基體)로서 가지는 한에서 이 전체성은 감성적인 것의 이념이다. 이렇게 상상력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까지 이르도록 박차를 가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이 하나의 이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은 이성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숭고를 통해 상상력과 이성 사이의 주관적 관계와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 관계는 우선 일치보다는 오히려 <불일치>, 즉 이성의 욕구와 상상력의 힘 사이에서 체험하는 모순이다. 이 때문에 상상력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숭고의 느낌은 즐거움보다는 고통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그 불일치의 심층에는 일치가 있다. 즉, 고통은 즐거움을 가능케 한다. 상상력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통해 자기의 한계에 직면할 때 상상력은 자기 고유의 한계를 넘어 버린다. 이는 진정 이성적 이념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을 표상하고 또 이 접근 불가능성조차 감성적 자연 안에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소극적 방법이다. <상상력은 감성적인 것 밖에서는 의지할 어떤 것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감성적 경계를 제거함으로써 상상력은 무한을 감지한다.


그리고 이 분리[감성적 경계를 제거하여 상상력을 감성적인 것에서 떼어놓는 분리]는 무한의 현시요, 이런 이유로 소극적 현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신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일치란 상상력과 이성의 불일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이성뿐 아니라 <상상력도> <초감성적 용도>를 가진다. 이러한 일치 속에서 정신은 모든 능력들의 규정되지 않은 초감성적 통일로 감지된다. 즉 우리는 초점, 즉 초감성적 것 속의 <집중점>으로서 초점과 관계하게 된다.

이렇게 상상력과 이성의 일치는 단순히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발생한 것>, 불일치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숭고의 느낌에 대응하는 공통 감각은 이 공통 감각이 발생하는 동태(動態)로서 <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발생에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확실히 이성의 이념들은 사변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실천적으로 규정된다. 이것이 광대함에 대한 수학적 숭고와 힘에 관한 역학적 숭고 사이의 차이의 원리이다(전자의 경우에는 인식 능력의 관점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욕구 능력의 관점에서 이성은 기능한다). 그 결과 역학적 숭고 속에서 우리 능력들의 초감성적 용도는 <도덕적 존재로서 짊어져야 할 운명>으로 나타난다. 숭고의 감각은, 숭고가 어떤 보다 높은 합목적성을 준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도덕 법칙의 출현을 준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

(『칸트의 비판철학 : 이성 능력들에 관한 이론』, 질 들뢰즈 지음, 서동욱 옮김, 민음사, 92~95쪽)

숭고 : 역설적 일치. ← 상상력과 이성의 일치 :

일치하지 않은 일치로서 고통 속의 조화를 나타낸다. “이것은 숭고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아닌 숭고를 느끼는 것이다. 이는 엄청나게 크거나 강력해서 형식으로, 상상력으로 대상을 포착할 수 없는 한계의 경험이다. → 이때 ‘저걸 그러라’(‘엄청나게 크거나 센 것을 감각적으로 현시하라’) 하는 이성(통일된 전체를 부여하는 능력)적 이념의 요구에 따라서 상상력의 한계, 즉 ‘저걸 못그러’ 하는 부정적 표현 속에서 역설적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는 발생을 보여준다.

 개념 파악 불가능성 + 도식화 불가능성(그려낼 수 없음) : 장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악함 = 탈근대적 주체 : 물러섬, 거리를 두는 주체. ;

거리를 두면 거기서 발생적 전환이 일어나 대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이념을 촉발해 이념이 드러난다. 따라서 숭고는 대상 속에서 우리가 투사한 이념을 보게 되는 것이다.

→ **숭고의 논리** : 불일치에서 일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숭고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발생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문화인은 자연 재해 속에서 숭고함을 봄으로써 일치를 찾고 발생적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자연은 주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원시인은 자연 재해 속에서 자연의 공포만, 불일치의 고통만 느끼는 것이다. 196쪽

상상력의 한계를 통해 내가 표현 못하는 한계 너머를 생각할 수 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계 내에서 한계 너머로 가는 변증법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상상력의 이념에로의 접근 불가능성·불일치(상상력이 이념을 상상, 표현할 수 없음) + 상상력은 이념을 접근불가능한 것으로 상상함/변증법적 전환(상상력은 자기 한계 너머를 상상함으로써 무제한적인 상상을 함) → 무한의 현시(이념) = 상상력의 초감성적 용도·사용 = 상상력과 이념의 일치(불일치 속에서 일치가 발생함)

-송고의 결과 :

- ① 능력들의 일치(불일치 속에서의 일치)가 발생한다. 일치가 발생하는 내적 논리 도출, 정리
 - ② 일치가 발생하는 모델 제시.
- ☞ 미의 보편성은 사실상의 보편성이 아니라 내가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당위적 보편성이다.

<판단력>

규정적 판단력 : 보편 → 개별(특수의 보편으로의 통합)

반성적 판단력 : 개별 → 보편(특수만 있고 보편은 모름)

반성은 한 번 더 돌이켜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반성 과정에서 우연히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 미(美)이다. 따라서 반성은 상상력이든 지성이든 다시 생각하는, 반영하는 과정이다.

<능력 간의 일치>

규정된 일치 :

순수이성비판 : 지성 지도 + 상상력

실천이성비판 : 이성(법칙) 지도 + 지성, 상상력

→ 근거 : 자유로운 일치 = [능력들의 자유로운 활동 +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

☞ 판단력비판 :

- ㉠ 두 비판의 가능 근거 논의.
- ㉡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논의
- ㉢ 이성의 기능은 규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상상력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3) 미감적 판단의 연역 :

능력들 간의 일치 발생 + 발생의 기원 제시 → 취미판단들의 연역의 대상.

이성의 관심 → 자연의 미

천재론 → 예술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관된 이성적 관심 : 자연의 대상과 우리의 무관심한 미적 쾌감 간의 일치를 위한 관심으로서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는 자연의 소질과 관계하는 관심이고 대상의 질료와 관계하는 관심이다. 예) 소리, 색조 등의 질료 속에서 이성적 이념의 현시됨을 본다. 흰 백합(자연적 대상) = 순수 순결(이성의 이념) : 이성적 이념의 현시 속에서는 오성의 개념들의 제한 없는 확장 + 상상력이 오성의 개념들이 가하는 구속으로부터 해방됨

☞ 이처럼 취미판단들의 연역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이성적 관심 속에서 상상력과 오성 간의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를 위한 선험적인 발생 원리를 발견한다.

-천재론 : 예술의 아름다움을 위한 상상력과 오성 간의 규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를 위한 선험적인 발생 원리를 다룬다. 천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관된 이성적 관심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예술 활동 속에서 질료를 취하고 이념을 질료에 육화시키며, 예술

활동을 통해 이성으로 하여금 이성 스스로에게 눈뜨게 하고 상상력을 해방시키며, 오성을 확장한다. → 이념들을 현시하는 양태를 이룸 + 메타 미학적 원리를 이룸 : 천재는 예술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의 발생 원리를 제공한다.

취미판단의 대상 :

대상의 실존 ×

대상의 질료(색채, 소리) ×

대상의 형식 ○ (대상질료의 배치·구상/구성방식 -색깔 간의 대조 형식)

= 조화 : 합목적성

자연대상 :

미적 판단의 실재론 : 경험론 → 내적 조화 = 목적/개념 없는 합목적성 ; 외적 목적(유용성 -자연목적)/ 내적 목적

미적 판단의 관념론 : 칸트 입장 = 주관적 태도, 선험적 판단을 중시함.

자연은 기회 제공 + 주관적 태도가 선험미추를 결정함/ 특수 법칙

대상. 예) 알록달록한 나비 : 자연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기계적 법칙이다.

미적 판단에서의 연역 ;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 ←자연(기계적 법칙)과 능력(특수법칙)의 일치. 이성의 관심, 천재론.

미의 형성 = 결정화 : 액체의 순간적 고찰.

액체 : 유동하는 질료의 존재론

① 이성의 관심 :

취미 : 무관심한 만족.

취미 발생 → 왜 발생했는가 : 취미의 이유, 근거 찾기에 대한 관심(이성의 관심)

→ 자연의 존재(자연이 내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의 질료 : 메타미학적이다. 이성의 메타미학적 관심. 취미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 이성적 관심은 질료에서 이념이 현시된 것을 본다.

예) 백합 :

취미 : 백합의 형식

이성적 관심 통해 미감적 이념을 현시한다. ↔ 이성이념(이론)

예) 백합의 흰색 = 순결 : 유비추론- 상상력의 자유 + 지성의 자유(지성 개념의 무한한 확장)

② 상상력의 해방-도식작용으로부터의 해방 :

형식에 대한 관심에서 질료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 이행

☞ 들뢰즈의 질료주의에 대한 기원

[직관의 대상인] 흰 백합은 더 이상 단순하게
(205쪽)

이성의 관심 - 자연미 : 사물의 아름다움

천재 - 예술미 : 사물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

자연과 예술을 연결시켜 주는 자 : 원래 있는 자연처럼 창작하는 사람이다. 천재같이 자연으로부터 형식을 창출하는 자는 드물고, 그것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이념의 현시, 표현 방법>

숭고 :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되는 것 - 소극적 방식

이성의 관심 - 자연미 : 적극적 방식. 자유로운 현시.

천재 - 예술미.

천재 = 예술에 규칙을 주는 재능자(규칙짜기) + 질료 도입(형식 구현해 작품으로 실존토록 함)

이성적 이념 : 상상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 → 부정적 방식으로 표현 = 숭고

→ 적극적 긍정적 방식으로=감각적으로 표현

미적 이념 : 또 다른 자연을 만들어 불가능한 것을, 이념을 표현

예) 예수의 십자가 통해 신성 표현

→ 상징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천재의 특이함, 독창성은 왜 다른 감상자에게 보편적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가?

① 다른 작가에 대한 영향력 : 독창성의 사례, 실례 = 모방 아닌 새로운 시도 자체/구사

② 보편적인 감동 : 질료 제공(모방 아닌 독창성) + 형성 formation(형식 모방)

천재의 개별적 계기

천재의 보편적 (감동)계기

미는 도덕적 관심과 연결되지만 도덕적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우연한 미의 발생)

따라서 그 결과를 볼 때, 칸트 미학은 다음과 같은 서로 평행하는 세 가지 발생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첫째는 숭고함에서 출발한 발생으로서 이성과 상상력의 일치의 발생이다. 둘째는 아름다움과 연관된 [이성적] 관심에서 출발한 발생으로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따라 이루어지는 상상력과 오성의 일치의 발생이다. 셋째는 천재에서 출발한 발생으로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따라 이루어지는 상상력과 오성의 일치의 발생이다. 물론 각각의 경우마다 해당 능력들은 그들의 기원적인 자유 상태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상호적인 일치 속에서 산출된다. 이리하여 『판단력비판』은 앞의 두 비판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된다. 앞의 두 비판은 이미 형성된 능력들에서 출발하였고, 그 능력들 중 한 능력이 주관하는 규정된 관계들 속에 들어갔으며, 조직된 과업들을 떠맡았다. 즉 이성의 사변적인 관심 속에서는 오성이 입법을 행하였으며, 이성 고유의 실천적인 관심 속에서는 이성이 입법을 행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칸트는 『판단력비판』은 사변적인 관심으로부터 실천적인 관심으로의 이동과 사변적인 관심의 실천적인 관심으로의 종속을 동시에 보장한다. 예를 들어 숭고함은 이미 우리 능력들의 초감성적 용도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오로지 도덕적 존재의 예정된 숙명과 같은 것일 뿐 그 외의 다른 무엇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관된 [이성적] 관심은 도덕성을 향해서 운명이 결정된 심성을 증언하고 있었

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그 자체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도덕적 세계에 통합시키는 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 종류의 아름다움의 분리를 극복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여기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예술의 아름다움 또한 궁극적으로 “도덕성의 상징”으로 이야기된다). [중략]

의심의 여지없이 『판단력비판』은 사변적인 관심이 어떻게 실천적인 관심에 종속될 수 있는지, 자연이 어떻게 자유와 일치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떻게 도덕적인 운명으로 선결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판단력비판』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되 오로지, 주체의 속과 밖에서 판단을 “자연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어떤 것에” 결부시키는 일을 통해서만 보여준다. 아울러 아름다움과 연관된 [이성적] 관심은 그 자체로 볼 때 도덕적인 것도 아니요 사변적인 것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 존재의 운명을 지닌다면, 그 이유는 이 도덕적 운명이 우리의 모든 능력들의 초감성적인 용도를 전개하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들의 초감성적인 용도는 [도덕적인 운명에 의해서 그것이 전개되고 설명되기 이전에] 우리 존재의 참된 핵심으로서, 모든 형식적 운명보다 더 깊은 원리로서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판단력비판』의 의미는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능력들이 규정되고 조건이 부여된 관계 속에서 『판단력비판』은 규정되지 않고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를 발견한다. 그리고 만약 이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자유로운 일치에 의해서 그것이 미리 가능한 것으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능력들의 규정된 관계, 즉 능력들 중의 한 능력에 의해서 조건이 부여된 관계는 결코 가능할 수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단력비판』은 다른 두 비판 속에 나타났던 조건 부여의 관점에 머물지 않는다. 즉 『판단력비판』은 우리로 하여금 발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한편 『판단력비판』이 보여주는 세 가지 발생은 단순히 평행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의 동일한 원리를 향해서 수렴한다. 그것들은 칸트가 심성이라고 불렀던 것의 발견을 향해서, 즉 우리의 모든 능력들의 초감성적인 통일을 향해서, “집중점”을 향해서 수렴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능력 하나하나가 능력들의 자유로운 일치 또는 자유로운 능력의 실행 속에서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산출되도록 하는 활기 부여의 원리를 향해서 수렴하는 것이다. 오성의 구속 아래에서 행해지는 도식 작용에 만족하지 않는 자유롭고 기원적인 상상력, 실천 이성의 목적들에 더 이상 종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한 자기 자신의 규정된 개념들이 가하는 사변적인 중량 아래 접혀 있지도 않은 무제한의 기원적인 오성, 명령의 의욕을 여전히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능력들을 해방시키며 자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기원적인 이성, 바로 이것이 『판단력비판』의 궁극적인 발견들이다. “초감성적인 것 속의 집중점”을 향해 수렴하면서, 즉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생명을 끄집어내게 되는 바로 그 초점을 향해 수렴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각각의 능력은 자기 발생의 원리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211~214쪽)

규정된 일치 : 능력들의 위계적 규정

↑↑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

↑↑

자유로운 능력들 : 감성, 오성, 이성

↑↑

심성 : 이념(?)

☞ 일치(발생) 이전에 능력들 간의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들뢰즈 논쟁의 핵심이다.
자연미-질료에 이성적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상상력의 자유가 일어난다.
자연-미를 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근거를 주는 것은 아니다.
미의 근거에 대한 물음은 '미가 왜 발생했을까'이다. 근거에 대한 물음은 이성의 일이므로,
이성적 관심 : 자연이 질료를 제공했고, 질료 속에는 이념을 현시한다. 미적 선호는 형식이
주는 것이다.

<논의 총정리>

취미판단의 대상 : 대상의 형식

숭고의 대상 : 대상의 형식 파괴- 상상할 수 없음, 불일치의 경험-고통

→ 표현할 수 없음을 부정적 방식으로 불일치를 상상함 : 상상의 한계 너머로 나아감 = 상상력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히 한계되지 않은 것으로 상상함. → 부정적 방식으로 불일치 속에서의 일치

* 내 안의 도덕 이념(초감성적인 것) : 이성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도덕 이념.

☞ 이 결과 해명 + 일치의 발생을 보여줌 : 연역 - 일치발생의 근거 제시

<능력들 간의 자유로운 일치의 발생>

① 취미판단에 대한 해명 : 지성과 상상력의 일치. 대상의 조화, 마음의 안정됨.

→ 개별적 감각(상상력) + 보편성·필연성(지성) = 미적 쾌감(일치의 근거) : 일치가 존재하나 일치의 발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 일치가 전제됨 : 자유로운 일치가 일어남을 확인 + 하지만 일치의 발생을 해명하지 못함. 취미판단의 일치의 근거 제시

② 숭고에 대한 해명 : 놀라움의 감정. 마음이 동요됨, 불편해짐 → 대상의 비조화(기형이나 무형)

- 연역 : 숭고의 설명 자체에 대상의 근거를 제시하는 연역이 들어 있다. 숭고의 대상이 없음 → 주관의 도덕적 이념을 현시함 :

-이성의 관심 : 자연미에서의 일치 발생

-천재론 : 예술미에서의 일치 발생